

한국 IS 연구자의 ISR, MISQ, JMIS에 출판된 논문의 생산성 측정 :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판 논문을 중심으로

임세현*

Measuring Research Publications of Korean IS Researchers in ISR, MISQ, and JMIS: Focusing on Research Papers between 2001 and 2010 years

Se Hun Lim*

Abstract

Many IS researchers had the greatest interesting in publication in leading IS journals. Studies of measuring research performance of Information Systems (IS) are the most important research areas. Today, many IS researchers considere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Quarterly (MISQ),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ISR), and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JMIS) as the leading IS journal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ublished papers of Korean and overseas Koreans related IS researchers in ISR, MISQ, and JMIS from 2001 to 2010. The results of this study appeared the trend of increasing frequency of publication of IS research in south Korea in the leading IS journals such as ISR, MISQ, JMI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howed the excellent performance of IS researchers and provided valuable information regarding publications performance of IS researchers in leading IS Journals.

Keywords : Researcher, Research Productivity, MIS, ISR, JMIS, Evaluation, Leading Journal

논문접수일 : 2011년 05월 28일 논문게재확정일 : 2011년 11월 21일

※ 본 연구자는 초고에 유익한 고견을 제안해주신 편집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상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부교수, e-mail : slimit@sj.ac.kr

1. 서 론

IS 연구자들은 다양한 IS 저널 중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Quarterly(MISQ), Information Systems Research(ISR),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JMIS)을 순수 IS 분야의 핵심 선도저널로 평가하고 있다 [Clark et al., 2009]. 현재 여러 국가에서 논문의 질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논문 출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대학은 교수의 종신직 심사, 승진, 연봉 산정 등에 있어 저명저널에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질적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Dennis et al., 2006; Whitman et al., 1999]. 현재 한국의 일부 대학에서도 톱슨 로이터스사의 학술 데이터베이스 인덱스인 SSCI, SCI, SCIE에 등재된 저널에 논문 출판을 승진, 정년 보장, 성과급, 연봉책정 등에 연계하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는 IS 학과를 홍보하기 위해 우수 IS 연구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우수 IS 연구자는 우수한 학술 역량과 IS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이다. 이들 대학은 우수한 학술역량을 가지고 있는 IS 연구자를 스카우트함으로써 대학(학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Gioia and Corley, 2002]. 미국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학과)의 경우 우수한 연구자 영입에 따라 우수 학생들의 대학원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 지원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학과)는 많은 지원 학생들 중 우수한 연구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대학(학과)에서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계에서 우수 연구자로 자리를 잡고, 우수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졸업한 학교의 위상을 높게 된다. 또한, 우수 연구자를 영

입한 학교(학과)는 영입한 우수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외부 연구자의 증가 현상으로, 궁극적으로 우수 연구자를 영입한 대학(학과)의 연구생산성이 증대되고, 학교(학과) 홍보 효과를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서는 학교(학과)의 위상이 높이기 위해 우수 IS 연구자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한국 대학에 있어, 우수 IS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IS 분야에서의 연구생산성 측정 연구는 중요 연구 분야 중 하나이고,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Michael and Raquel, 2007; Bharati and Tarasewich, 2002; Chua et al., 2003; Bharati and Tarasewich, 2002; Clark et al., 2009; Walczak, 1999; Claver et al., 2000]. 현재 한국에는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는 IS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IS 연구자들은 미국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연구자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연구자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IS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이 우수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불어 한국 대학의 교육 여건 및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여준다.

국내 IS 학술 저널에서의 연구생산성 측정에 대한 연구의 출판은 드문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ISR, MISQ, JMIS에 출판한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생산성 측정을 통해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의 우수성과 한국 IS 연구자의 IS 분야에서의 높아진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ISR, MISQ, JMIS에 출판된 연구 논문을 한국 IS 연구자의 출판 논문을 3년, 5년, 10년 기간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IS 연구자의 높아진 위상과 연구 역량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대학의 우수 IS 연구자와 우수한 IS 분야의 연구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연구생산성 측정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다[Daigle and Arnold, 2000]. IS 분야에서도 IS 연구생산성 측정 연구는 중요한 연구 주제로 지속적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결과가 출판되고 있다[Athey and Plotnicki, 2000; Barnes, 2005; Clark et al., 2009; Ayanso et al., 2007]. IS 연구생산성 측정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저널 평가에 중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고[Nord and Nord, 1995; Rainer and Miller, 2005; Willcocks et al., 2008], 연구자 평가에 중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Chua et al., 2002], 학교 및 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Ferratt et al., 2007; Treischmann et al., 2000; Kozar et al., 2006] 등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으며, 더불어 분석 방법도 저널 출판 논문 빈도, 저널 임팩트 팩터(Journal impact factors)[Holsapple et al., 1994; Holsapple et al., 1993; Karuga et al., 2006; Katerattanakul et al., 2003], 전문가의 의견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Peffer and Tang, 2003; Lowry et al., 2004; Mylonopoulos and Theoharakis, 2001] 등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AIS(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의 선도 연구자 포럼(<http://home.aisnet.org/>)에서는 순수 IS 분야의 우수한 연구저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MISQ, ISR, JMIS, ISJ, JAIS, EJIS, JSIS, JIT가 포함되어 있다.¹⁾ 한편, 최근 IS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 알칸 사스 주립대학교 샘워튼 경영대학(Sam Walton College of Business, University of Arkansas)의 벤 카테쉬(Viswanath Venkatesh) 교수는 연구생산성 측정 및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동료들과 IS 분야의 저널의 논문출판 성과를 검색할 수 있는 웹 사이트(<http://www.vvenkatesh.com/ISRranking>)를 구축하였다. 이 웹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IS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검색할 수 있다. 저널 평가에 있어 Venkatesh[2010]는 AIS 기준과 달리 선행연구에 입각해 순수 IS 분야의 선도저널로 MISQ, ISR, JMIS, EJIS, JAIS, JSIS, ISJ, JIT를 선택하였다. 반면, Clark et al.[2009]은 사이언토메트릭(scientometric) 기법을 이용해 IS 분야의 저널을 평가하였는데, 그들은 MISQ, ISR, JMIS, JAIS, EJIS, ISJ, DSS, CAIS, I&M을 선도저널로 평가하였다. 특히, 그들은 MISQ, ISR, JMIS를 MIS 분야의 핵심 선도저널로 분류하였다. 그 밖에 여러 연구자들이 IS 분야의 연구생산성 측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IS 분야에서 MISQ, JMIS, ISR을 선도저널로 평가하였다[Rainer and Miller, 2005; Peffer and Tang, 2003; Lowry et al., 2004; Mylonopoulos and Theoharakis, 2001].

IS 분야에서 기술 분야 및 특화된 IS 분야를 연구하는 IS 연구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IS 연구자들은 MISQ, ISR, JMIS 세 저널을 IS 선도저널로 평가하는데 동의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R, MISQ, JMIS 저널을 분석 대상 저널로 선정하여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을 살펴보았다.

1) 본 연구에 이용된 저널의 명칭 및 약어는 *MIS Quarterly (MISQ)*,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ISR)*,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JMI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JAI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JIS)*, *Information Systems Journal (ISJ)*, *Decision Support Systems (DSS)*,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CAIS)*, *Information*

and Management (I&M), *Journal of Strategy Information Systems (JSI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JIT)*, *Journal of Strategy Information Systems (JSIS)*을 의미한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저널

3. 연구방법론

3.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의 연구생산성 측정을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판 논문을 분석하였다.²⁾ 본 연구에서는 벤카테쉬(Venkatesh) 교수가 구축한 연구생산성 측정 데이터베이스(<http://www.vvenkatesh.com/ISRranking/>)를 이용하였고, 또한 ISR, MISQ, JMIS에 출판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2011년 2월 10일 벤카테쉬 교수의 연구생산성 측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추출하였고, 년도별, 기간별로 정리를 하였다. 벤카테쉬 교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자료에는 일부에서 미세한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연구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들이 한국 IS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영문 이름에 대한 성, 이름, 예명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자는 한국 IS 연구자에 대하여 ISR, MISQ, JMIS 저널 웹 사이트와 연구자의 홈페이지에서 한국 IS 연구자의 이름, 논문명, 저널, 출판년도, 볼륨,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 미세한 오류를 수정하였다.

3.2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Chua et al.(2002)가 제시한 평

2) 본 연구에서 한국 IS 연구자는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한국인 또는 한국계 외국인 IS 연구자를 의미한다.

가방법 중 일반 카운트(Normal Count : NC) 방법과 가중 카운트(Weighted Count : WC) 방법, 1순위 저자에 따른 카운트(Straight Count : SC) 방법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생산성 측정 방법은 연구논문에 대한 성과측정을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에서 연구생산성 측정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Venkatesh et al., 2010].

첫째, 일반 카운트 방법은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의 이름을 카운트 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연구자 A」, 「연구자 B」, 「연구자 C」가 공동연구를 통해 ISR에 1편의 논문을 출판하고, 「연구자 A」, 「연구자 C」가 공동연구를 통해 JMIS에 1편의 논문을 출판하였다면, 「연구자 B」의 일반 카운트는 1, 「연구자 A」, 「연구자 C」의 일반 카운트는 2가 된다.³⁾

둘째, 가중 카운트 방법은 출판 논문에 따라 가중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1인 저자 논문 출판은 1점, 2인 저자 논문출판은 0.7점, 3인 저자 논문 출판은 0.5점, 4인 저자 논문 출판은 0.3점으로 평가하였다. 위의 사례에 적용하면, 「연구자 A」의 가중 카운트는 1.2가 되고, 「연구자 B」의 가중 카운트는 0.5가 된다. 1순위 저자에 다른 카운트 평가를 보면 「연구자 A」는 2, 「연구자 B」와 「연구자 C」는 0이 된다.

셋째, 1순위 저자에 따른 카운트는 논문 출판에 있어 1저자는 1이 되고, 나머지 저자는 0이 된다. 예를 들면, 위에서 제시한 JMIS, ISR에 출판된 논문에 있어 「연구자 A」는 1순위 논문이 2편이기 때문에 카운트가 2가 되고, 나머지 연구자들은 0이 된다.

3) ISR, MISQ, JMIS에 저널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는 교수, 학생, 초빙 학자, 기업체 근무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한국 IS 연구자의 경우 영문 이름 표현에 있어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Venkatesh 교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문 이름 저장 자료를 이용해 「연구자+영문 이름」으로 표기하였다.

〈표 1〉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생산성 측정
(100위 안의 한국 IS 연구자 분석)

순위	연구자	NC	WC	SC
1	Izak Benbasat	29	17.3	1
2	Andrew Whinston	20	9.4	1
3	Robert Kauffman	17	9.1	4
4	Ritu Agarwal	14	7.2	5
5	Alan Dennis	13	6.7	6
5	Jay Nunamaker	13	4.9	1
5	Viswanath Venkatesh	13	7.5	5
8	Eric Clemons	11	8.1	9
8	Paul Pavlou	11	6.9	7
8	Arun Rai	11	5.9	5
8	Detmar Straub	11	5.5	3
8	Kar Yan Tam	11	6.3	3
22	Wonseok Oh	7	3.5	4
22	Youngjin Yoo	7	4.6	3
52	Sung Kim	5	3.4	3
74	Jai-Yeol Son	4	2.6	3

3.3 분석 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양한 분석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ISR, MISQ, JMIS 저널에 출판된 한국 IS 연구자의 기간별 연구생산성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10년(2001년부터 2010년), 5년(2006년부터 2010년), 3년(2008년부터 2010년) 단위 분석을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ISR, MISQ, JMIS 저널에 출판된 한국 IS 연구자의 년도별 출판 논문 저자, 출판논문 수 및 가중치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ISR, MISQ, JMIS 저널에 출판된 한국 IS 연구자의 년도별 연구생산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4. 분석4)

4.1 기간별 연구 생산성 측정 : 2001~2010 연구생산성 측정

먼저,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세 저널에 논문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출판 논문 수와 가중 카운터, 1순위 저자 논문 수를 평가하였다. 1순위부터 100순위까지의 IS 연구자 중 1순위부터 10순위 혹은 공동 연구자가 많은 경우는 3순위까지는 연구자의 순위를 제시하였고, 나머지는 100순위 안에 있는 국내 및 국외 한국 IS 연구자의 순위를 제시하였다.

먼저,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 중 연구생산성 측정에 따른 1순위, 2순위, 3순위 연구자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Izak Benbasat」은 29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그 중 1편을 1저자로 출판하였으며, 가중치는 17.3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Andrew Whinston」은 20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1저자로 출판한 논문은 1편으로 나타났고, 가중치는 9.4로 나타났다. 「연구자 Robert Kauffman」은 17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4편을 1저자로 출판하였으며, 가중치는 9.1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한 한국 IS 연구자 중 100위 안에 포함되는 연구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Wonseok Oh」은 7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그중 4편이 1저자로 출판된 논문이었으며, 가중치는 3.5로 나타났다. 「연구자 Youngjin Yoo」는 7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3편이 1저자로 출판된 논문이었으며, 가중치는 4.6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Sung Kim」은 5편

4) 본 연구에서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심사가 이루어진 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년도별 연구생산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였다. 관련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저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3편을 1저자로 출판하였으며, 논문의 가중치는 3.4로 나타났다. 「연구자 Jai-Yeol Son」은 4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그 중 3편이 1저자로 출판된 논문이며, 가중치는 2.6으로 나타났다.

4.2 기간별 연구생산성 측정 : 2006~2010년 사이의 연구생산성 측정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 중 1위는 「연구자 Izak Benbasat」으로 20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그 중 1저자로 출판된 논문은 없었으며, 가중치는 11.8로 나타났다. 2위로는 「연구자 Ritu Agarwal」, 「연구자 Robert Kauffman」,

〈표 2〉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생산성 측정
(100위 안의 한국 IS 연구자 분석)

순위	연구자	NC	WC	SC
1	Izak Benbasat	20	11.8	0
2	Ritu Agarwal	10	5	3
2	Robert Kauffman	10	4.6	2
2	Andrew Whinston	10	4.8	0
5	Arun Rai	9	4.9	4
5	Viswanath Venkatesh	9	5.1	3
7	Alan Dennis	8	3.8	2
7	Jay Nunamaker	8	3	1
7	Paul Pavlou	8	4.8	5
10	Eric Clemons	6	5	6
10	Sanjay Gosain	6	3.2	0
10	Alok Gupta	6	2.6	0
10	Sunil Mithas	6	3	4
10	Amrit Tiwana	6	4.6	6
10	Joseph Valacich	6	2.6	1
16	Wonseok Oh	5	2.7	3
25	Youngjin Yoo	4	2.7	2
48	Sung Kim	3	2.4	2
48	Jai-Yeol Son	3	2.1	2

「연구자 Andrew Whinston」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Ritu Agarwal」은 10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그 중 3편을 1저자로 출판하였으며, 가중치는 5로 나타났다. 「연구자 Robert Kauffman」은 10편의 논문을 출판하였는데, 2편을 1저자로 출판하였고, 가중치는 4.6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Andrew Whinston」은 10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가중치는 4.8로 나타났다.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을 살펴보면, 「연구자 Wonseok Oh」은 5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그 중 1저자로 출판한 논문은 3편으로 나타났고, 가중치는 2.7로 나타났다. 「연구자 Youngjin Yoo」는 4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그 중 2편이 1저자로 나타났고, 가중치는 2.7로 나타났다. 「연구자 Sung Kim」은 3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그 중 2편이 1저자로 나타났고, 가중치는 2.4로 나타났다. 「연구자 Jai-Yeol Son」은 3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1저자로 출판된 논문을 2편으로 나타났으며, 가중치는 2.1로 나타났다.

4.3 기간별 연구생산성 측정 : 2008~2010년 사이의 연구생산성 측정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논문 출판빈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Izak Benbasat」은 11편의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1저자로 출판한 논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문의 가중치는 5.9로 나타났다. 「연구자 Andrew Whinston」은 9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1저자로 출판한 논문은 없었으며, 가중치는 4.3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Ritu Agarwal」은 8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그 중 3편을 1저자로 출판하였으며, 출판된 논문의 가중치는 3.8로 나타났다. 「연구자 Robert Kauffman」은 8편의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1저자로 출판한 논문은 2편으로 나타났고, 가중치는 4로 나타났다.

<표 3>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생산성 분석
(100위 안의 한국 IS 연구자 분석)

순위	연구자	NC	WC	SC
1	Izak Benbasat	11	5.9	0
2	Andrew Whinston	9	4.3	0
3	Ritu Agarwal	8	3.8	3
3	Robert Kauffman	8	4	2
5	Viswanath Venkatesh	7	3.7	2
6	Alok Gupta	6	2.6	0
6	Arun Rai	6	3.4	3
8	Alan Dennis	5	2.7	1
8	Jay Nunamaker	5	1.9	1
8	Amrit Tiwana	5	3.9	5
21	Sung Kim	3	2.4	2
21	Youngjin Yoo	3	2	2
50	Hoon Cha	2	1	2
50	Dan Kim	2	1.5	2
50	Jae Moon	2	1.2	1
50	Jai-Yeol Son	2	1.4	1

한국 IS 연구자의 2008년부터 2010년 연구생산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자 Sung Kim」은 3편의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그 중 2편을 1저자로 출판하였고, 2.4로 나타났다. 「연구자 Youngjin Yoo」는 3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1저자로 출판한 논문은 2편으로 나타났으며, 가중치는 1로 나타났다. 「연구자 Hoon Cha」는 2편의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가중치는 1로 나타났다. 「연구자 Dan Kim」은 2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1저자로 출판한 논문은 2편이었고, 가중치는 1.5로 나타났다. 「연구자 Jae Moon」은 2편의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가중치는 1.2로 나타났다. 「연구자 Jai-Yeol Son」은 2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그 중 1편을 1저자로 출판하였으며, 가중치는 1.4로 나타났다.

5. 토의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자료 중, 논문 수, 연구자 수, 가중치를 토대로 <그림 2>와 같은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그림 2>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생산성

<그림 2>와 <표 4>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⁶⁾⁷⁾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생산성 특징을 보여주는데, 2001년에는 4명의 연구

- 5) 한 연구자가 한해 여러 편의 논문을 출판한 경우에도 연구자 수는 1로 카운트 하였다.
- 6) <그림 2>에서는 연구자와 논문의 가중치를 그림으로 도식화하였다.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는 카운트 1을 부여하였고, 연구 가중치는 Chua et al.[2002]의 연구에 기반해 연구자 수에 따라 1, 0.7, 0.5, 0.3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 수에 따른 카운트와 연구자 수, 연구 가중치와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그림 1>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 IS 연구자들은 2005년에 ISR, MISQ, JMIS에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하였고, 더불어 가장 많은 공동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으며, 2003년은 다른 년도와 비교할 때 적은 수의 연구자들이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더불어,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7) 저널 에디터(journal editor)의 편집 철학에 따라 저널에 출판되는 논문의 수에 차이가 존재한다. 저널 에디터가 엄격한 논문의 품질 통제를 하면 적은 수의 논문이 출판된다. 예를 들면, MISQ의 경우, 2000대 초반에는 에디터의 엄격한 논문의 품질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기별로 출판되는 논문집에 따라 5편 내외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반면, 2010을 전후해서는 10편 내외의 논문이 분기별로 논문집에 출판되고 있다. 이는 에디터의 논문 품질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2000년대 초반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에디터 및 편집위원회의 편집 방향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연구자료 수집이 용이해져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이 높은 품질의 우수 논문을 다수 출판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4〉 년도별 연구자 수, 출판논문, 가중치 특성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연구자 수	11	9	8	12	9	19	6	5	8	4
출판논문 수	9	7	8	8	7	12	5	5	6	3
가중치 합계	6.36	5.7	5.8	7.6	6.2	9.6	2.8	4.1	4.1	2.6

자가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하였고, 논문의 전체 가중치 합계는 2.6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19명의 연구자가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하였고, 가중치의 합계는 9.6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12명의 연구자가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하였고, 가중치 합계가 7.6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11명의 연구자가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하였고, 가중치의 합계는 6.36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출판된 논문 가중치의 합계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05년에 가장 많은 연구자가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SR, MISQ, JMIS에 출판된 논문 수를 살펴보면, 한국 IS 연구자들은 2005년이 가장 많은 12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더불어 2001년에는 3편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또한 최근 한국 IS 연구자들의 출판 논문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10년간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 분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IS 연구자 중 「연구자 Youngjin Yoo : the Fox School of Business and Management, Temple University」, 「연구자 Wonseok Oh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ISR, MISQ, JMIS에 7편의 논문을 출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SR, MISQ, JMIS에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는 연세대학교로 나

타났고, 「연구자 Wonseok Oh」, 「연구자 Jai-Yeol Son」, 「연구자 Kil-Soo Suh」, 「연구자 Jin-Woo Kim」 등의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대학에서 이직한 연구자가 연구생산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수의 연구자들도 ISR, MISQ, JMIS에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연구자 Gimun Kim」, 「연구자 Soon-Jae Kwon」, 「연구자 Kun-Chang Lee」, 「연구자 Hee-Woong Kim」, 「연구자 Byounggu Choi」, 「연구자 Jae-Nam Lee」, 「연구자 Gee-Woo Bock」 등의 연구자가 있었다. 이들 연구자의 박사학위 취득 대학은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KAIST, KAIST, KAIST, KAIST, KAIST 순서로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IS 분야에서 선도저널에 연구성과를 출판하는 우수 연구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최근 3년(2008년부터 2010년) 간 ISR, MISQ, JMIS에 논문 출판 빈도(2편 출판)가 높은 연구자로는 「연구자 Hoon Cha⁸⁾ : Information and Decision Sciences, the Perdue School of Business, Salisbury University」, 「연구자 Dan Kim⁹⁾ :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University of Houston, Clear Lake」, 「연구자 Sung Kim : Operations and Information Management, Wisconsin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8) 현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9) 현재, Univ. of North Texas, Dep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cision Sciences.

〈표 5〉 년도별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

년도	연구자
2010	Youngjin Yoo, Jae Choi, Sue Young Choi, Gimun Kim, Bongsik Shin, Dowan Kwon, Gwanhoo Lee, Heeseok Lee, Wonseok Oh, Ray M. Chnag, Youngki Park
2009	Sung Kim, Hoon Cha, Seokjoo Chang, Dan Kim, Dongmin Kim, Hee-Woong Kim, Kichan Nam, Jai-Yeol Son, Jahyun Goo
2008	Jae Moon, Hoon Cha, Dan Kim, Sung Kim, Jintae Lee, Sungjune Park, Jai-Yeol Son, Jaeki Song
2007	Wonseok Oh, Sang-Yong Lee, Il Hahn, Sangyong Jeon, Dowan Kwon, Deishin Lee, Jungsoo Park, Sungiune Park, Seung Kyoong Shin, Jai-Yeol Son, Byungjoon Yoo, Youngjin Yoo
2006	Wonseok Oh, Se-Joon Hong, Dongmin Kim, Joung Kim, Yong-Mi Kim, Soon-jae Kwon, Kun-chang Lee, Sung-jin Park, Seungjin Whang
2005	Wonseok Oh, Gee-Woo Bock, Jin Choi, Yujong Hwang, Bum Kim, Kimin Kim, Kyung Kim, Sung Kim, Yong Jin Kim, Chung Suk Ryu, Yong-Gul Kim, Dong-Gill Ko, Choong Lee, Dongwon Lee, Gwanhoo Lee, Jae-Nam Lee, Young Lee, Jai-Yeol Son, Kil-Soo Suh
2004	Jong-Moon Chung, Kunsoo Han, Sung Kim, Yong-Mi Kim, Jae-Nam Lee, Jinsoo Park
2003	Byounggu Choi, Tae-Dong Han, Heeseok Lee, Moon Yi, Yang W. Lee
2002	Youngjin Yoo, Kwanghee Han, Jinwoo Kim, Jungwon Lee, Moonkyu Lee, Bongsik Shin, Byungjoon Yoo, Kanghyun Yoon
2001	Ihlsoon Cho, Kun Shin Im, Young-Gul Kim, Youngjin Yoo

Wisconsin-Madison」이 있었고, 이들 연구자의 소속은 외국 대학으로 나타났고, 「연구자 Jae Moon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는 2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현재 연구자의 소속은 국내 대학이나 2008년 논문 출판 당시는 외국 대학 소속이었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는 외

국 대학 소속 연구자가 많았고, 최근 일부 IS 연구자들이 국외 대학에서 국내 대학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시사점

본 연구는 IS 연구자들이 선도저널로 평가하는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 논문 생산성을 측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성과측정에 있어 기간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IS 연구자들이 세계적 선도저널에 논문을 출판하였는데, 출판 논문을 살펴보면, 외국 대학을 졸업한 연구자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연구자도 논문을 출판하였다. 이는 국내 대학교의 IS 교육이 외국 대학의 IS 교육과 수준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불어 외국 대학 못지않게 국내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이 IS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IS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생산성 분석 결과는 국내 IS 연구자의 노력으로 우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한국 IS 연구자의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ISR, MISQ, ISR에 출판된 70여 편의 논문을 살펴보면, 몇몇 연구자의 단독 연구 및 국내 연구자들이 출판한 논문을 제외하면, 약 90%에 해당하는 출판된 논문은 미국 저명 대학의 IS 연구자들 협업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IS 분야의 선도저널에 논문 출판을 위해서는 학술적 역량이 뛰어난 저명 대학의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협업 연구를 위한 교류 강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노력은 IS 연구자들이 선도저널에 연구논문을 출판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어 위키 백과사전에 의하면, “전 세계에는 245개의 국가가 있고, 그 중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주권 국가가 193개이다.”고 한다.¹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IS 선도저널인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 중 100위 내의 IS 연구자 집단에는 미국, 캐나다, 인도 등의 연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ISR, MISQ, JMIS을 대상으로 연구생산성이 100위 안에 드는 한국 IS 연구자로 「연구자 Wonseok Oh : 7편 출판」, 「연구자 Youngjin Yoo : 7편 출판」, 「연구자 Sung Kim : 5편 출판」, 「연구자 Jae-Yeol Son : 4편 출판」 4명 있다는 것은 IS 분야에서 한국 IS 연구자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이 IS 분야에서 위상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2008년부터 2010년 최근 3년 사이에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생산성 측정 결과에 따라 100위 안의 한국 IS 연구자는 6명(「연구자 Sung Kim」, 「연구자 Youngjin Yoo」, 「연구자 Hoon Cha」, 「연구자 Dan Kim」, 「연구자 Jae Moon」, 「연구자 Jae-Yeol Son」)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생산성 측정 결과는 한국 IS 연구자들의 선도 IS 저널에 연구 논문 출판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생산성 분석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 IS 연구자들은 세계적으로 학술 분야에서 위상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7.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ISR, MISQ, JMIS 저널에 논문을

출판한 IS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을 측정하였다. 앞서 설명한대로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ISR, MISQ, JMIS 저널이 IS 분야의 선도저널임에 동의할 하겠지만, 연구 주제 및 연구 분야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이 세 저널이 IS 분야의 대표 선도저널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IS 분야의 연구자 임에도 불구하고 ISR, MISQ, JMIS가 아닌 「Management Science」저널에 논문을 출판하는 IS 연구자도 존재할 것이다. 「Management Science」는 경영과학 분야의 선도저널이지만, 다수의 IS 연구자들이 논문을 출판하는 저널이다. 또한 미국 달라스에 소재한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경영대학에서 실시하는 세계 경영대학 순위 평가에 적용되는 IS 저널은 MISQ, ISR, Journal of Computing이 포함되어 있고, JMIS는 제외되어 있다.¹¹⁾¹²⁾ 즉, 연구생산성 측정에 있어 평가자 및 평가기관마다 저널 선택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IS 분야의 선도저널인 ISR, MISQ, JMIS를 대상으로 IS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을 측정할 결과의 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1) <http://som.utdallas.edu> : 2011년 4월 8일 접속.

12) 미국 달라스 소재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경영대학에서 수행하는 세계 경영대학 연구생산성 순위 평가에서는 경영 분야의 24개 저널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반영한 논문 수를 종합해 대순위를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저널은 「The Accounting Review,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Journal of Fin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Journal on Computing, MIS Quarterl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Marketing Science, Management Science, Operations Research,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Manufacturing and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Organization Sci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이 있다.

10) <http://ko.wikipedia.org> : 2011년 3월 1일 접속.

둘째, IS 분야에서 선도저널과 우수논문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선도저널이 아닌 저널에도 많은 우수논문이 출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ISR, MISQ, JMIS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들 이외에도 우수한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바다를 떠다니는 빙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보다 물속에 잠기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크다. 마찬가지로, IS 연구자의 연구생산성 측정에 있어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하지 않거나, 출판한 논문수가 적더라도, 우수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들이 우수한 연구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연구 결과의 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ISR, MISQ, JMIS의 출판논문 빈도와 연구자 역량과는 직접적인 관계 분석에 대한 심도 깊은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생산성, 즉 논문 출판 빈도로 연구자의 우수성 평가하는 데는 일반화에 한계가 뒤따른다고 생각된다. 연구생산성 측정 결과로부터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은 ISR, MISQ, ISR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는 우수한 연구역량의 가진 연구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연구자의 뛰어난 학술적 업적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ISR, MISQ, JMIS의 논문 출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의 편집위원회의 영향(편집위원의 심사 참여 및 논문의 저널 출판을 위한 출판 시기 결정 및 추천 여부, 논문 출판을 위한 심사 프로세스에 있어 엄격한 논문 품질 통제, 심사자별 논문 심사 기간의 상이함에 따른 출판 지연, 편집위원의 논문 심사 과정 통제, 논문 심사 과정 중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교체 등) 등이 있다.¹³⁾ 그렇기 때문에 연구생산성 측정에 있어 출판 시점은 차이가 존재할 것이고, 더불어, 논문

출판 시기 측면에서의 출판 논문의 정량화에 따른 평가와 적용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Stake, 2004].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 정량적 분석이 가져다주는 의미보다는 포괄적 측면에서 한국 IS 연구자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탁월한 학술적 업적을 인지하는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논문에서 이용한 IS 연구자라는 용어는 IS 저널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라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IS 연구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지 못하는데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앞서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IT/IS 연구는 경영정보학 뿐만 아니라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언론정보학, 산업공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Benbasat and Zmud, 2003].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IS 연구자 중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의 전공은 산업공학, 경제학, 마케팅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IS 연구자란 MIS 연구자 이외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IS/IT를 연구해 IS 저널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최근 국내외 대학에서의 연구자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 연구자의 소속기관 이동 부분을 모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국외 대학에서 국내 대학으로의 이동, 국외 대학에서 국외 대학으로의 이동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나타난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 IS 연구자의 연구생산

13) [http://isr.journal.informs.org 출판 논문 참고] *Information Systems Research*에 출판된 논문을 살펴보면, 논문 투고부터 출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대략 1년 6개월~6년 정도 소요되고 있다.

성 측정과 소속 기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분석을 통해 한국 IS 연구자의 연구생산성 측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맺음말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ISR, MISQ, JMIS에 논문을 출판한 한국 IS 연구자들을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는 몇몇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IS 연구자들의 학술적 우수성을 보여주었고, 더불어 연구생산성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존재한다.

참 고 문 헌

- [1] Athey, S. and Plotnicki, J., "An Evaluation of Research Productivity in Academic IT",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3, No. 7, 2000, pp. 1-20.
- [2] Ayanso, A., Lertwachara, K., and Vachon, F., "Diversity or Identity Crisis? An Examination of Leading IS Journals",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20, No. 42, 2007, pp. 660-680.
- [3] Barnes, S., "Assessing the Value of IS Journal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48, No. 1, 2005, pp. 110-112.
- [4] Benbasat, I. and Zmud, R., "The identity crisis within the IS discipline : Defining and communicating the discipline's core properties", *MIS Quarterly*, Vol. 27, No. 2, 2003, pp. 183-194.
- [5] Bharati, P. and Tarasewich P., "Global perceptions of journals publishing ecommerce research",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48, No. 5, 2002, pp. 21-26.
- [6] Chua, C. Cao, L., Cousins, C. Straub, and D. W., "Measuring Researcher Production in Information System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3, 2002, pp. 145-215.
- [7] Clark, J. G., Warren, J., and Au, Y. A., "Carnegie Classifications and Institution Productivity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 A Scientometric Study",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19, 2007, pp. 478-512.
- [8] Clark, J. G., Warren, J., and Au, Y. A., "Assessing Researcher Publication Productivity in the Leading Information Systems Journals : A 2003~2007 Updat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24, No. 14, 2009, pp. 225-254.
- [9] Claver, E., Gonzalez, R., and Llopis, J., "An Analysis of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1981~1997)",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 37, No. 4, 2002, pp. 181-195.
- [10] Dennis, A. R., Valacich, J. S., Fuller, M. A., and Schneider, C., "Research Standards for Promotion and Tenure in Information Systems", *MIS Quarterly*, Vol. 30, No. 1, 2006, pp. 1-12.
- [11] Daigle, R. J. and Arnold, V., "An analysis of the research productivity of AIS faculty",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Vol. 1, No. 2, 2000, pp. 106-122.
- [12] Gioia, D. and Corley, K., "Being good v.

- looking good : Business school rankings and the Circean transformation from substance to image”,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Vol. 1, 2002, pp. 107-120.
- [13] Ferratt, T. W., Gorman, M. F., Kanet, J. J., and Salisbury, W. D., “IS Journal Quality Assessment Using the Author Affiliation Index”,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19, 2007, pp. 710-724.
- [14] Holsapple, C. W., Johnson, L. E., Manakyan, H., and Tanner, J., “A Citation Analysis of Business Computing Research Journals”,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 25, No. 5, 1993, pp. 231-244.
- [15] Holsapple, C., Johnson, L. E., Manakyan, H., and Tanner, J., “Business Computing Research Journals : Adjusted Citation Analysi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11, 1994, pp. 131-140.
- [16] Hu, Q. and Gill, T. G., “IS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 Influential Factors and Implications”,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Journal*, Vol. 13, No. 2, 2000, pp. 15-25.
- [17] Karuga, G. G., Lowry, P. B., and Richardson, V. J., “Assessing the Impact of Premier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over Tim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19, No. 7, 2006, pp. 115-131.
- [18] Katerattanakul, P., Han, B., and Hong, S., “Objective Quality Ranking of Computing Journal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46, No. 10, 2003, pp. 111-114.
- [19] Kozar, K., Larsen, K., and Straub, D. W., “Leveling the Playing Field : A Comparative Analysis of Business School Journal Productivity”,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17, 2006, pp. 524-538.
- [20] Lowry, P. B., Romans, D., and Curtis, A., “Global Journal Prestige and Supporting Disciplines : A Scientometric Study of Information Systems Journal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5, No. 2, 2004, pp. 29-77.
- [21] Lowry, P. B., Karuga, G. G., and Richardson, V. J., “Assessing Leading Institutions, Faculty, and Articles in Premier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Journals”,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20, No. 16, 2007, pp. 142-203.
- [22] Michael, J., “Gallivan, Raquel Benbunan-Fich, Analyzing IS research productivity : An inclusive approach to global IS scholarship”,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6, 2007, pp. 36-53.
- [23] Mylonopoulos, N. and Theoharakis, V., “Global Perceptions of IS Journal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44, No. 9, 2001, pp. 29-33.
- [24] Nord, J. H. and Nord, G. D., “MIS research : Journal status assessment and analysis”,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 29, No. 1, 1995, pp. 29-42.
- [25] Peffers, K. and Tang, Y., “Identifying and Evaluating the Universe of Outlets for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 Ranking the Journal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ory and Application*, Vol. 5, No. 1, 2003, pp. 63-84.

- [26] Rainer, Jr. K. and Miller, M., "Examining Differences across Journal Ranking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48, No. 2, 2005, pp. 91-94.
- [27] Treischmann, J., Dennis, A., Northcraft, G., and Neimi, A., "Serving Multiple Constituencies in the Business School : MBA Program Versus Research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3, No. 6, 2000, pp. 1130-1141.
- [28] Stake, J. E., Rankings are Dangerous!. 2004. (Available at <http://monoborg.law.indiana.edu/LawRank/>).
- [29] Walczak, S., "A reevaluation of Information Systems publication forums",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Vol. 40, No. 1, 1999, pp. 88-97.
- [30] Whitman, M. E., Hendrickson, A. R., and Townsend A. M., "Academic rewards for teaching, research, and service : Data and discours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0, No. 2, 1999, pp. 99-109.
- [31] Willcocks, L., Whitley, E. A., and Avgerou, C., "The Ranking of Top IS Journals : A Perspective from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7, No. 2, 2008, pp. 163-168.
- [32] <http://home.aisnet.org/>.
- [33] <http://isr.journal.informs.org>.
- [34] <http://ko.wikipedia.org>.
- [35] <http://som.utdallas.edu>.
- [36] <http://www.vvenkatesh.com/ISranking>.

■ 저자소개



임 세 헌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상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물류 IT, 행복과 건강, IT/IS응용, 디자인경영 등을

연구하고 있다.